

대입 맞춤형 진학지도 강화한다

도교육청, '2018학년도 대학입시 위한 대입 맞춤형 진학지도 기본 계획' 확정 단위학교 안내

진학부장·담임교사 연수 진행 입시 설명회 7~8차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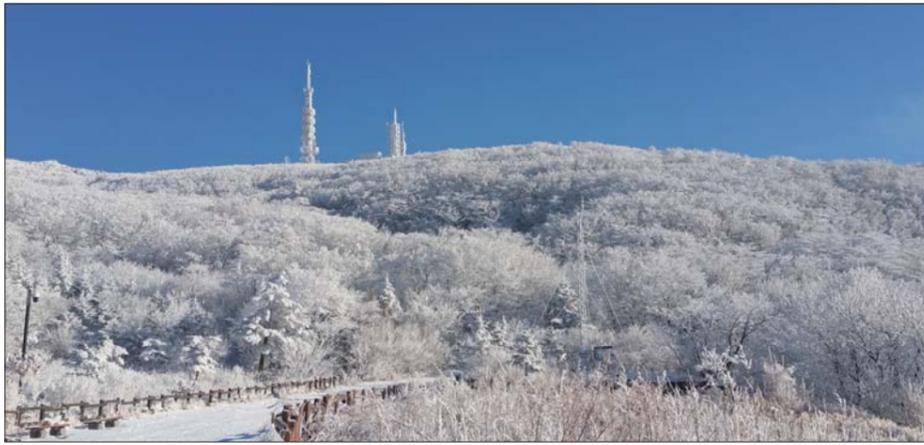
201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정보제공과 진로진학 상담이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2017년 대입 맞춤형 진학지도 기본 계획'을 확정, 단위학교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대입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할 고3 진학부장과 담임교사 연수가 2월과 7월, 12월에 총 5차례 진행된다. 연수에서는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성을 안내하고 수시·정시 지원전략 및 면접·논술 대비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입시 설명회는 올해 7~8차례 개최한다. 첫 입시 설명회는 4월15일 EBS와 전북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이어 5월과 6월, 8월, 12월에 잇따라 개최된다.

대규모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군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는 '권역별 입시설명회'와 '찾아가는 작은 입시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입시정보와 지원전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면접 능력을 키워주고 자



지리산 노고단의 아름다운 설경

신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대입 수시 도의면접캠프'도 마련된다.

도내 고3 학생 4백여명을 대상으로 7월25일 열린 이 캠프에서는 대학교 입학사정관과 교사가 한 조가 되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지도를 하게 된다.

대입 진로진학 상담실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 고3 학생들의 수시 전형 대비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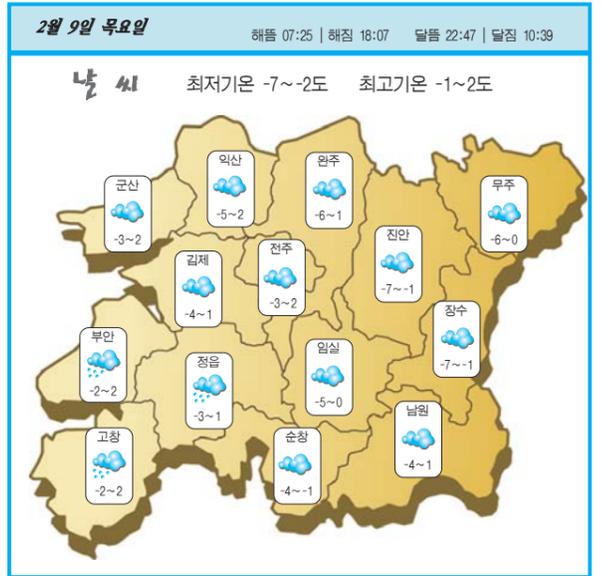
실은 9월 1~8일, 정시 전형 대비 상담실은 12월 18~29일 각각 설치 운영된다. 고 1·2학년 대상으로는 한 진로진학 상담부스도 5월 27일과 10월 21일 도교육청과 수능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매년 수시모집 인원 증가와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과정 및 학생부 기록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장학사와 대학입학사정관, 진학부장 등으로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구성, 50교 이상을 대상으로 연2회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해줄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진학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책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독서진흥 활동으로 '책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특성을 살린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이 엄마 품속에서 그림책을 보고 배우는 '책이랑 아이랑', 아동들의 사고력 향상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그림책과 수학스토리텔링',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비디어 리더러시', 청·장년층에게는 책을 통해 소통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위한 책 놀이', '군인을 위한 독서백신'을 운영하며, 나이드신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정춘 자서전 쓰기'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책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단위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가족 책놀이', '가족 인문학당' 등 4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모집인원은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15명에서 20명 내외이며 13일부터 도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정해은기자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막 D-100일

전주시, U-20월드컵 홍보탑 설치 대회 홍보 본격 나서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전주에 집중시킬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대회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 대회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대회 볼 조성을 위해 종합경기장 사거리 등 시내 주요 지점 5개소에 대회 홍보탑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회 공식 룩과 마스코트 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홍보탑은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홍보탑 설치에 이어 이달 중 만경강 제방 호남고속도로 인근에도

U-20 월드컵 홍보를 위한 지주형 광고탑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대회 집중 홍보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는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주요 지점으로 홍보탑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한옥마을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한옥마을 태조소에 가로등기를 설치하는 등 U-20 월드컵 대회와 전주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적극 홍보해왔다.

이와 관련, 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시민 홍보는 물론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티켓 판매, 자원봉사자 선정 등 축구의 도시 전주를 알릴 분야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가 열리는 월드컵경기장 시설의 경우, 전광판 교체 공사가 완

료때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25만 화소에서 디지털 송출방식의 140만 화소 전광판으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경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광판을 통해서도 생동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천연잔디 및 식재층 교체, 잔디그라운드 확장 등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조경시설 공사, 음향설비, 실내건축 등 시설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단장된 월드컵경기장은 오는 3월로 예정된 FIFA 최종 실사를 거쳐 오는 4월이면 손님맞이를 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시는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U-20월드컵추진단 인력을 포함해 전주시 개최도시 운영

본부 인력을 18명으로 증원했으며, 전라북도축구협회 관계자와 아나운서 등 전문 인력을 합류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대회 기간 그라운드 안팎을 누비며 전주의 성공 개최를 이끌어줄 11개 분야 196명의 자원봉사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지난 1월말 선발했다. 이들은 세 차례의 직무 및 소양교육 등을 거친 후 오는 4월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봉근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장은 "전주에서 대회의 첫 경기이자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축구의 도시 전주를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알리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영재기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집중 교체

완산구는 이달 28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기능) 집중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기능 표지는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교체되는 표지는 명칭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 된다.

기존의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고 본인용(노란색) 및 보호자용(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위반조 방지 기능을 포함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한자·문화캠프' 참가 초등학생 모집

전주시가 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전통문화캠프를 운영한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봄 방학을 맞아 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캠프 프로그램인 '전주 한자·문화캠프'를 마련하고, 캠프에 참가할 초등학생 3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전주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연수원의 동헌과 고택에서 친구들과 합숙하며 서당식 전통교육을 받는 캠프 프로그램으로, 이번 봄방학 캠프는 오는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비는 7만원이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jedu.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국립승주사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